

또 다른 선언

-『공산당 선언』 150주년 학술제-

0. 들어가며

학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학회마당'을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없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의 위기에 대한 체감의 깊이가 더해 감을 느낍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든지 그것에 대항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급박한 심정과 배짱 하나로 일을 추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행사를 눈앞에 두고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처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단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비록 '바위에 계란치기 식'의 행사에 그칠지 모르지만, 현재의 위기에 대한 탈출구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속에서 자신의 운동방향을 점검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1. '학술제'의 문제의식

1) 운동의 위기/ 자치- 자기 변혁 운동의 필요성

우리는 이번 학술제의 축을 크게 두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줄기는 '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의 모순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 모순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효과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흔히 말하여지는 일반 학우)는 뭔가 껌껌하긴 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겠거니 생각하든지 아니면 감히 그것에 대해 따지 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대학)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마법에 걸려 버린 듯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모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하려 했던 조직적인 움직임이 학회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그러한 자생적인 움직임마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보면 현재의 '위기'라는 것이 참으로 심각함을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러한 자치운동의 쇠퇴는 전체 사회의 마법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술제에서 이러한 자치운동의 위기를 화두로 그것의 활로를 모색해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부르게 학술제에서 마법에 걸린 일반학우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이 가능했던 제반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학회나 자치단체들-운동을 고민하는 단위들-의 현재 상황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지금 위기의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공산당 선언」의 재해석 또는 현재적 의미 부여

제안서에도 밝혔듯이 우리는 선언을 하나의 메타포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현실의 모순(자본주의)에 고통받고 있는 피억압자들(노동자 계급)의 자기 운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현재 학내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 문제의식을 계승한다 함은 학내에서의 문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언과 자치(운동)를 고민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현재의 정세 속에서 선언의 현재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독해하고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을 기념하고자 함은 아니며,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진행되는 자본의 광폭한 자기증식과 자기파멸의 길에 대한 부정이며 역사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또 다른 선언입니다.

2. 참여하는 단위들

-토론회 참가 단체: 문과대 학생회

딜레마(문과대 학회), 꿈지락(사회대 신방과 학회), 목하, 제2대학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환경위원회

-기고문: 상경신문, 연세과학, 연세 문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열세번재(여성운동 소모임), 북녘동포 돕기
김향(연세대 신방과 91), 이상훈(연세대 사회학과 석사 2학기)
카피레프트 모임(『선언 150년 이후』 역자)

3. 학술제 일정

16일 국제 연대 투쟁의 필요성	17일 학회론이 아닌 학회 이야기	18일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기초발제(문과대) - 국제연대투쟁에 대해 ● 사바디스따 강의 ● 영상물 상영 ● 질의 응답	● 학회이야기 하나 - 학회,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꿈지락, 딜레마 ● 학회이야기 둘 - 학회 활동의 전망을 찾아서 - 발제 : 목하, 제2대학	● 열린 운동을 향한 작은 발걸음!! - 총론 발제 (학술제 준비모임) - 주제별 발제(총여/총학환경위) - 논평 - 질의 응답